

# AI 기술로 농산업 혁신·융합 활성화 나선다

## AI사업단-농촌진흥청 업무협약 AI 기업들, 고품질 데이터 활용 스마트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농업분야 AI 융합생태계 구축"

병해충 이미지 데이터와 드론 촬영 이미지 데이터 등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농산업 분야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은 지난 5일 AI사업단 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촌진흥청이 오랜 기간 구축한 표준화된 고품질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농업에 AI 기술을 적용,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스마트 농업 확대와 AI 융합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표준화'란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형식이나 범위 등을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표준화된 데이터는 오류와 중복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며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점이 있다.

세부 협약 내용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신규 사업 기획 및 과제 발굴 연계 협력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협력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 기술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협력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AI사업단으로부터 AI데이터센터 컴퓨팅자원을 제공받아, 수집·연구한 고품질의 농산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의 '농업 분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플랫폼'에 구축된 데이터는 AI사업단의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유돼 연구에 활용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AI사업단의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AI 기업들은 고품질의 농산업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AI 모델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의 고품질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데이터 활용 능력을 높이고, 농가 역량을 향상시켜 국내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과 미래 농업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농촌진흥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AI 기업들이 농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AI 제

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면서 "고품질의 연구 데이터의 활용은 농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AI 융합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성제훈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장은 "농촌 고령화, 기후변화, 식량 안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AI데이터센터 컴퓨팅자원을 지원받아 연구한 농업 분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 농업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업 분야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전남도, 연말연시 겨울 남도여행지 추천

전남도가 소중한 사람과 연말연시 추억을 쌓고 세밑을 더욱 뜻깊게 보낼 12월 겨울여행지 4곳을 선정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12월 선정 여행지는 '완도 해양치유센터', '광양 구봉산 전망대', '함평 돌머리 해변', '진도 세방낙조'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고운 모래가 깔없이 펼쳐진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완도 신지면에 위치한다. 해수에 몸을 담그며 신체의 치유를 돕는 프랑스 전통 미용 기법 '탈라소 테라피' 체험 시설이 유명하다. 인근 약산면 해안 치유의 숲에 조성된 돌레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도 감상할 수 있다. 문의는 완도해양치유센터(061-550-5572), 약산해안치유의 숲 산림치유센터(061-550-5509)로 하면 된다.

'광양 구봉산 전망대'는 순천·여수·하동·남해까지 광양만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일출·일몰 명소다. 야간 경관도 아름다워 한국관광공사의 '2020 한국 야간관광 100선'에 이어 '2023 대한민국 밤밤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문의는 구봉산전망대(061-791-7627)로 하면 된다.

'함평 돌머리 해변'은 육지의 끝이 머리 모양의 바위로 돼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해변 앞 아름답리 소나무숲에 조성된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도 즐길 수 있다. 문의는 석두어촌계(061-322-9567)로 하면 된다.

'진도 세방낙조'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풍경을 볼 수 있는 낙조경관 명소다. 해 질 무렵 섬과 섬 사이로 보이는 붉은 빛의 일몰을 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기에 제격이다. 문의는 쉬미항 유람선(061-543-0300)으로 하면 된다.

최항지 기자



광주 북구, 연탄 배달 봉사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자생단체 회원들이 6일 북구 중흥3동에서 지역 돌봄세대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남경건설에서 후원한 연탄 400장을 배달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광주관광공사, 기독교 주제 양림선교여행 상품 출시

광주관광공사는 '빛과 진리를 찾아서 광주로'라는 주제로 종교문화힐링여행상품 광주 양림선교여행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1박 2일 코스로 개발한 여행상품은 선교사들과 기독교 1세대의 헌신이 담긴 양림동 일대를 돌아보고, 광주의 5·18 민주정신을 엿볼 수 있는 코스로 채워졌다. 광주만의 특색있는 전시·공연·먹거리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여행 상품은 광주에 최초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개화의 새 물결과 일제 치하에서 구국 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던 23인의 선교사가 묻혀있는 곳인 양림동 선교사묘역과 전남도 최초의 선교사 배유지 목사, 클레멘트 오웬이 헌신한 수피아여학교를 포함한 양림동 선교지를 소개한다.

또 5·18 자유공원과 1913송정역시장 등을 방문, 의향 광주의 민주정신을 공유하고 광주 7미(味) 중 하나인 송정리향토떡갈비를 맛보는 여정으로 이어진다.

최권범 기자

## 정영근 도의원 "광역상수도담 주변 환경조사 필요"

전남지역 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환경기초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영근 의원(순천1·더불어민주당·사진)이 전남도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담의 중요성과 동시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담 주변 환경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담은 에너지 생산과 안전 보장, 홍수 통제, 용수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담 주변에는 상수도 보호구역과 기타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담 주변 기후 변화로 인한 작물 생육 상태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환경기초조사는 기초단체

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단일담을 두고 있는 광역단체인 전남도 환경당국이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환경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5개 광역상수도담이 운영되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환경산림국장은 "환경기초조사를 위해 영산강환경청과 수계관리기금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신청을 했으나 채택이 어려워 내년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계획 중에 있다"며 "2024년 예산 순증을 통해서라도 환경기초조사를 하도록 전남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항지 기자

## 전일빌딩245, 시민복합문화공간 '자리매김'

### '아트오아시스' 4만7천여명 방문 21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5·18사적지인 '전일빌딩245'가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특화프로그램인 '아트오아시스'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21개 프로그램을 198회 운영한 결과, 총 4만7000여명이 누적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은 5·11월 매주 토요일 전일빌딩245 일대에서 공연, 전시, 체험, 북토크, 플라마켓, 정보기술(IT) 강연, 증강현실(AR) 게임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원데이클래스 '액션! 아트 놀이터'를 비롯해 청년들을 위한 문화기획 클래스 '청년예술기획창고', 시니어층에게 커피교육을 제공한 '나만의 작은 시니어카페', 아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쿠킹클래스 '오늘은 아빠가 제빵왕',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오락프로그램 '전일뽕뽕오락실', 빌딩투어게임 '증강현실(AR)게임투어' 등 체험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공연 프로그램의 경우 매주 다양한 장



전일빌딩245 명랑가족놀이터 하하호호.

르를 버스킹 형식의 상설 공연으로 진행한 '버스킹 오아시스', 전일빌딩245를 주제로 품격있는 공연을 진행한 '브랜드 공연·바라는 바다' 등이 열려 토요일 오후를 감성과 열정으로 가득 채웠다.

특히 2년째 진행된 특화공연 '싱어송라이터스'는 70년대 후반 창작가요의 산실이었던 전일가요제의 명맥을 이으며 유명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마련해 가을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전일빌딩245 1층을 시민 친화적인 갤러리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상설전시 프로그램 '전일245展', 재능있는 시민과 신진작가들에게 첫 전시의 기회를 제공한 '내 생애 첫 전시', 이이남 작가 등이 참여한 미디어 전시 '미디어의 밤' 등이 진행됐다.

강연·토크 프로그램인 '인문학 북토크·책 읽어주는 여자·남자'는 문학·인문·출판·교육분야 명사들을 초대해 인문학과 우리 삶의 이야기를 엮어내는 시간을 만들었다.

시장프로그램인 '덕질상점'은 한 달에 한번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벼룩시장(플라마켓) 부대행사로 함께 진행한 '아무튼 북페어'는 전국 인기 독립서점을 한 자리에 모아 각 서점의 개성을 담은 독립출판물 등을 소개했다.

이두원 문화도시조성과장은 "전일빌딩245가 지닌 역사적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에게 친근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거듭났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프로그램의 좋은 점을 더욱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내년에도 더욱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트 오아시스'의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http://ccep.kr/ko/>)과 인스타그램(@jeonil\_building\_245\_) , 공식블로그(blog.naver.com/jeonil245\_)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33-0245.

최권범 기자